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0.(월) 6:00 배포 2026. 4. 17.(금) 15:00

성평등가족부, '특별한 성과 낸 공무원 포상'으로 업무 혁신 이끈다

- 국민 체감 우수 성과 6개 과제 15명 대상 1,600만원 지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4월 20일(월)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 이번 수여식은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 대통령 지시사항 :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25.12.16., 국무회의)

□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아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 야간 특화 긴급돌봄 운영 도입 등 총 6개의 정책과 15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 정책 과제별로 **장관 표창과 함께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수여**되는 한편,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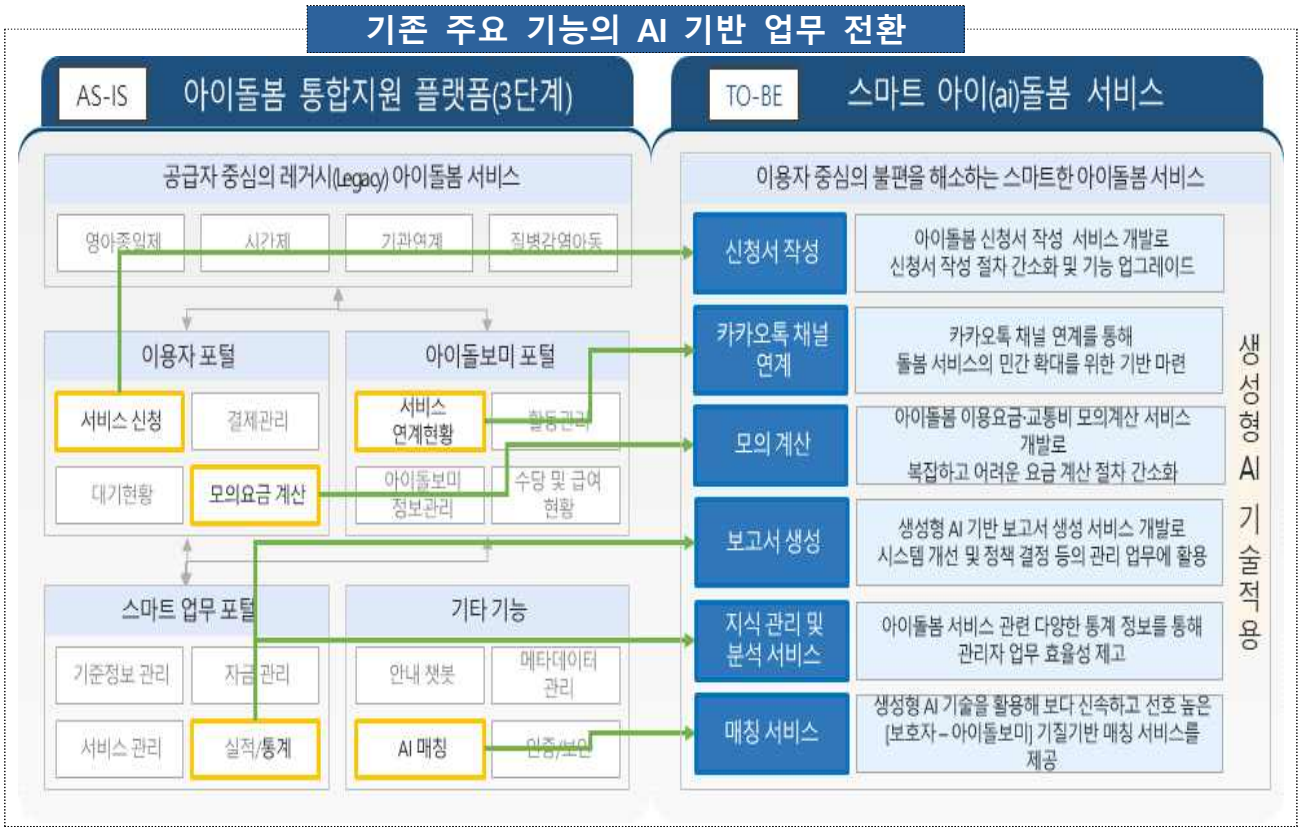
□ 특별성과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행정 효율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과감한 보상과 지원으로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1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6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로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제고(정보통계담당관실)

○ 임태선 사무관은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형을 주도적으로 기획, 개발하여 아이돌봄 특성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교통비와 이용요금 모의계산, 지식관리 및 분석 서비스 등 주요 기능들을 AI기반으로 전환하고, 대규모언어모델(LLMOps)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인 성과를 가져왔다.



② **자동매칭 고도화, 야간 특화 긴급돌봄 운영 도입으로 국민이 원할 때 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봄지원과)**

○ 조신희 사무관, 임예택 주무관, 천요섭 주무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자동 연계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 대비 2배로 자동 연계 성공률을 높였으며,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간(22~06시) 시간대의 긴급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본격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켰다.

* 이용자(아동 나이, 거리 등)와 돌보미(돌봄 경험, 거리, 돌봄 가능시간)의 조건 고려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금지 및 처벌 도입으로 피해자 명예보호 및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 확산에 기여(권익정책과)**

○ 박선옥 과장, 조명식 사무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기존 형법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명예훼손에 일일이 대응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것과 달리 『위안부피해자 보호법』개정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④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 개최 등 공존·공감에 기반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성형평성기획과)**

○ 임종필 과장, 김소현 사무관, 백원종 사무관, 최욱태 주무관은 청년세대 소통의 자리인 토크콘서트 '소다팝' 기획을 계기로 '청년세대 성별 균형 문화확산'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고,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로 청년들 스스로가 성별 인식격차 현황, 원인 파악 등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공론장을 운영하는 청년 주도형 정책 설계 구조를 마련하였다. 특히, 토크콘서트의 경우 직접 사무관, 주무관이 기획과 운영 전반을 추진하면서 예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요건 완화 등 적극적 제도개선 및 회수시스템 구축으로 선지급 제도 기반 마련(가족지원과)

○ 권혜은 서기관, 박경희 사무관, 한서영 주무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25년 7월)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악의적인 소액 이행으로 선지급 신청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25년 9월)을 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체계 구축으로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이행을 강제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촉진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행받지 못하는 약 1.9만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이고 양육비 전부 이행월이 없는 경우 선지급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⑥ 사이버안전센터 고도화를 통한 '침해사고 ZERO' 달성(정보통계담당관)

○ 임영숙 사무관, 이태연 주무관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과 안정화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약 936만 건의 실시간 위협에 대응하여 침해사고가 없었으며, 정보 노출 정황 탐지로 추가 사고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 다크웹 주요정보 유출점검(2,255건), 민감정보 점검(22건)으로 유해트래픽 88% 감소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곤	(02-2100-6081)
		담당자	사무관	박효련	(02-2100-6085)
			주무관	신민지	(02-2100-6086)